

‘과열’ 남도의병 역사공원 결국 보류

총사업비 당초 구상보다 2배 이상 늘어 큰 부담 전남도 “콘텐츠 보충 후 예산확보”...공모 중단

사업구상 단계부터 전남지역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과열된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예산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반면, 공원 운영계획은 부실하게 수립되면서 자칫 사업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우려를 낳으면서 전라도가 사업공모를 보류하기로 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 말 공고하기로 예정됐던 남도의병 역사공원 지자체 대상 공모를 보류하기로 했다.

남도의병 역사공원은 임진왜란에서부터 3·1운동까지 호남지역 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이 지역 의병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48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의병 역사공원이라는 상징성과 역사·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 상품성까지 갖추면서 도내 시·군 지자체들이 치열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예초 오는 23일 도내 지자체들로부터 유치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친 후 28일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역사공원 콘텐츠 미흡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한 국비확보에 난관이 예상되면서 먼저 공원 조성 계획을 보완한

후 입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공모일정을 중단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맡은 용역은 시·군 공모를 위한 입지선정 평가기준 마련에 집중되면서 정작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콘텐츠 구상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역사공원에 들어설 기념관과 전시·교육·체험시설 운영계획 등도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예초 구상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예산확보도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남도가 내놓은 사업 규모는 200억원이었으나 올해 들어 48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자체 관심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국비로 확보해

야한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자칫 국비 확보에 실패하거나 확보액이 부족하면 지방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사업 추진 자체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용역을 통해 역사공원 콘텐츠를 좀더 충실하게 보완한 뒤,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역사공원 유치전이 과열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국비확보를 위한 콘텐츠 마련에 집중할 시기로 판단했다”며 “공모접수 시기는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주·보성·함평·장흥·해남 등 도내 10여개 시·군이 관련 유물을 기탁하는 등 다양한 감점들을 내세우며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김영민 기자

광주 시민의병대, 광화문 국민대회 ‘맹활약’ 이용빈 대장 “독립운동가 대접받는 세상 앞장”

김태원 의병장 전적지 광주 어등산(광산구)에서 뜻을 올린 ‘광주 시민의병대’ (대장 이용빈)가 지난 15일 열린 서울 광화문 반일 시민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시민의병대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상경해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열린 강제징용 피해보상 시민대회, 낮 12시 보신각 타종행사,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회, 오후 4시 일본대사관 앞 아베정권 규탄행동에 이은 오후 6시 촛불대회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며 반일투쟁에 동참했다.

특히 시민의병대는 일본 대사관 앞 규탄시위 등을 전개해 동참한 대회장 곳곳에 온집한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용빈 의병대장은 종각에서 열린 보신각타종행사 후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이제 독립운동가들도 뜻뜻하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광주 시민의병대는 지난 14일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청년 100여명이 참여한 ‘아베정권 규탄 플래시몹’ 행사를 펼쳐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 도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 반일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해 손병석 사장에게 전라선 KTX 증편과 동력분산식 전기차량(EMU) 정비기지 유치 등 철도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전남도 제공

김 지사, 코레일에 전라선 KTX 증편 요청

전기차량 전환 앞두고 정비기지 유치 등 협조 당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전라선 KTX 증편을 요청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최근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해 손병석 사장에게 전라선 KTX 증편과 동력분산식 전기차량(EMU) 정비기지 유치 등 철도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전라선 KTX는 올해 상반기 주말 하행 기준 이용률이 111%에 이르는 등 표구매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코레일 측은

오는 9월 16일부터 주말 2회 증편 등 매일 최대 16회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여객용 차량은 2020년부터 디젤에서 동력분산식 전기차량으로 전면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선 권역에 동력분산식 전기차량 정비를 담당할 새로운 기지건설이 필요하다. 정비기지가 들어서면 200명 이상의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이 예상된다. /김영민 기자

김 지사는 이날 손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국가철도망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전남-제주간 해저터널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적극 추진돼야 한다”며 “전남과 제주가 유라시아로 가는 블루레이의 시발지가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 사장은 “지역별·노선별 철도 이용객 현황을 토대로 노선 재조정 시 적극 검토하겠다”며 “현재 공사 중인 울산 덕하 동력분산식 전기차량 기지가 있으나, 향후 경쟁비 수급 현황을 파악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영민 기자

‘시정개입·위법’ 논란 광주시 정책자문관 없앤다

“무보수 명예직 불구 상임으로 잘못 운영...규정 폐지”

시정개입·위법행위 등 각종 의혹과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시 정책자문관 제도가 10년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책자문관 운영규정 폐지를 공고했다. 시는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르지 않고 잘못된 규정(훈령)에 의해 위법하게 운영된 정책자문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의해 무보수 명예직인 정책자문관은 비상임으로 월정액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민선 6기 매월 자료료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을 지급하고 별도 사무실까지 제공하는 등 사실상 상임으로 운영해왔다.

시는 상임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대로 비상임으로 정책자문관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 정책자문관 제도는 민간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2009년 훈령으로 운영규정이 마련됐다. 민선 4기에는 4명, 민선 5기에는 운영되지 않았지만, 민선 6기에 15명으로 늘고 호화로운 비품을 갖춘 별도의 사무공간이 시정에 마련된 데다 일부가 시정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규정을 만들어 임의로 상근 운영하고 활동료를 지급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위법하게 운영한 정책자문관 제도는 폐지하고 조례대로 비상근의 자문관을 두겠다는 의미”고 설명했다. /황애란 기자

시, 중소기업 ‘청년채용’ 뒷받침

광주지역 전략산업과 지식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이 지역청년을 고용하면 1인당 월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광주시는 지역 전략산업과 지식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인건비와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광주지역 전략산업 및 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

일 밝혔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완화, 지역 우수 청년 유출방지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추경사업에 신청해 선정됐다.

대상기업은 지역 전략산업(광산업, 가전, 금형, 의료, 자동차, 에너지)과 지

식서비스업(디자인, IT서비스, 시험분석, 컨설팅, 이력)의 중소·중견기업이다.

대상 청년은 광주 거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 134명이다. 대상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올해 10월부터 2년간 1인당 월 최대 160만원(인건비의 80%)을 지원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에 19일부터 23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황애란 기자

‘남도장터’ 내달 11일까지 추석 특판

농수축산물 최대 47%할인...한우 등 397개 품목

전남도는 명절 대목을 맞아 추석 연휴 전라남도 9월 11일까지 한 달간 농수축산물을 최대 47% 할인하는 온라인 특판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추석선물 대잔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온라인 특판행사는 전남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펼쳐진다. 한우, 전복, 굴비, 한과 등 총 397개 제품이 대상이다. 최대 47% 할인행사를 한다.

1만~2만원대의 알뜰 선물세트부터 식품명인 제품,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등 8만~9만원대의 품격있는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하게 출시했다.

남도장터 쇼핑몰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이베이코

리아, 11번가, 위메프, 티몬, 롯데프레시, 롯데닷컴, 롯데이몰, cj쇼핑, 공영홈쇼핑 등 전남도와 제휴 중인 모든 온라인 채널에서 진행된다.

전남도는 ‘추석선물 대잔치’ 행사를 알리기 위해 전국 9,000여 시군구 및 공공기관에 구매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전라남도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등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하고 있다.

김영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석 선물은 농어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고품질의 정이 가득한 우수 농수축산품으로 준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식품 마케팅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ODA
Korea Developer Association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호남 지회

도시를 바꾸는 밸류 크리에이터!

모두가 같은 길을 걸을 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찾습니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새로운 시선으로 숨겨진 가치를 찾아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땅과 도시의 고부가가치를 디자인하고 창조하는 길!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해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호남지회

www.koda.or.kr